

날1 명사

밤 열두 시에서 다음 밤 열두 시까지의 이십사 시간 동안.

-마지막 날.

-만우절 날.

-스승의 날.

-시민의 날.

-어느 날.

-같은 날.

-좋은 날.

-특별한 날.

-나와 내 가장 친한 친구인 영수는 같은 날에 태어났다.

-오늘같이 좋은 날에 어떻게 술 한잔이 빠질 수 있겠습니까?

하루 중 밝은 동안.

-날 동안.

-날이 밝다.

-날이 새다.

-날이 저물다.

-날이 짧아지다.

-여름이 되니까 날이 길어지고 밤이 짧아진다.

-밤늦게까지 일하지 말고 날 중에 빨리 할 일을 마치고 자려고 한다.

-가: 승규 씨, 집에 안 가요? 벌써 날이 저물었어요.

-나: 벌써요? 네, 곧 가겠습니다.

그날그날의 비, 구름, 바람, 기온 등의 상태.

-날이 가물다.

-날이 개다.

-날이 따뜻하다.

-날이 좋다.

-날이 차다.

-날이 춥다.

-날이 풀리다.

-이제 봄이 되니 추웠던 날도 풀려 따뜻하다.

-오늘은 햇볕도 따뜻하고 바람도 적당히 부는 것이 참 날이 좋다.

-가: 유민아, 오늘은 날이 차. 옷 따뜻하게 입어.

-나: 응. 어제는 따뜻했었는데 오늘은 춥네. 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러워.

어떠한 이유로 정해 놓은 하루.

-개회식 날.

-결혼식 날.

-방학식 날.

-입학식 날.

-날이 잡히다.
-날이 정해지다.
-날을 받다.
-날을 잡다.
-날을 정하다.
-우리 축구 팀의 결승전 경기 날이 바로 내일이다.
-나는 회사 면접을 보기로 한 날이 다가오자 긴장이 많이 되었다.
-오늘은 오랫동안 기다려 온 소풍 날이다.
-드디어 언니의 결혼식 날이 내일로 다가왔다.
-가: 엄마가 나 선 보라고 하신 날이 곧 다가와.
-나: 그날이 언제인데?

어떠한 시절이나 때.
-젊은 날.
-화려했던 날.
-영광의 날.
-옛날에 인기 있었던 가수가 텔레비전에 나와 그녀가 젊었을 때의 화려했던 날들을 추억했다.
-가: 나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라는 법은 없어.
-나: 그래. 곧 멋진 날이 올 거야. 힘내!

‘경우’의 뜻을 나타내는 말.
-걸리는 날에는.
-떨어지는 날에는.
-들통 나는 날에는.
-아픈 날이면.
-혼나는 날이면.
-돈을 훔친 사실을 들키는 날에는 난 죽은 목숨이다.
-민준이는 상사에게 혼이 난 날이면 동료들과 맥주를 마셨다.
-가: 너 이번 성적표를 엄마한테 보여 드렸어?
-나: 아니. 그거 걸리는 날이면 난 집에서 쫓겨날 거야.

오늘1 명사

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날.

-오늘 식사.

-오늘 신문.

-오늘 약속.

-오늘 오후.

-오늘 점심.

-오늘의 메뉴.

-오늘의 식단.

-오늘의 일정.

-오늘은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결혼하는 날이다.

-오늘로 예정되어 있던 회의가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내일로 미루어졌다.

-가: 오늘 저녁엔 뭐 먹을까?

-나: 날씨도 더운데 시원한 냉면 먹으러 가자.

현재, 지금의 시대.

-오늘의 동향.

-오늘의 사회.

-오늘의 세계.

-오늘의 정세.

-오늘의 한국.

-오늘의 현실.

-조선 시대와 달리 오늘의 시대는 사회에 진출하는 적극적인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.

-오늘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.

-가: 우리 회사가 오늘처럼 성장한 것은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.

-나: 아닙니다.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.

요즘 명사

아주 가까운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사이.

-요즘 시대.

-요즘 세대.

-요즘 사람들.

-요즘 아이들.

-요즘의 남자.

-요즘의 여자.

-요즘의 가격.

-요즘의 상황.

-요즘 같은 시대.

-요즘 들어서.

-요즘에 와서.

-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인터넷 없이 하루도 살기 힘들다.

-민준이는 평생 동안 요즘처럼만 행복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한다.

-승규는 요즘 들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.

-우리 누나는 요즘 아가씨 같지 않게 부모님께서 정한 사람과 결혼했다.

-가: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요?

-나: 회사에 일이 많아서 바쁘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.

달1 명사

밤이 되면 하늘에 뜨는 동그랗고 밝은 빛이 나는 천체.

-밝은 달.

-달이 기울다.

-달이 뜨다.

-달이 밝다.

-달이 지다.

-달이 차다.

-어머니는 매일 밤 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다.

-지구와 달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크고 밝은 달을 볼 수 있다.

-가: 둥근 달이 떴네.

-나: 벌써 보름인가?

일 년을 열두로 나누어 놓은 기간.

-같은 달.

-다음 달.

-이번 달.

-지수와 유민이는 같은 달에 아기를 낳는다.

-이 대리는 다음 달에 회사를 그만두고 배낭여행을 간다고 선언했다.

-가: 이번 달엔 정기 검진 받으러 언제 가요?

-나: 매달 말일이야.

며칠 명사

그달의 몇째 날.

-승규는 시험이 며칠부터인지 잊어버려서 친구에게 물어보았다.

-할아버지는 기억력이 좋으셔서 손자들이 몇 월 며칠에 졸업했는지까지 다 기억하신다.

-가: 다음 회의는 며칠입니까?

-나: 5월 4일입니다.

몇 날.

-며칠 동안.

-며칠 전.

-며칠 후.

-며칠이 걸리다.

-며칠이 지나다.

-며칠 동안 계속 비가 오는 바람에 빨래를 말리지 못하고 있다.

-민준은 며칠 전에 차가 고장이 나서 요즘 버스로 출퇴근하고 있다.

-가: 여권 만드는 데 오래 걸려요?

-나: 아니요, 며칠 안 걸려요.

지난주 명사

이번 주의 바로 전의 주.

-바빴던 지난주.

-지난주 금요일.

-지난주 수업.

-지난주 주말.

-지난주부터 바쁘다.

-지난주에 이어.

-지난주에 만나다.

-지난주에 배우다.

-민준이는 지난주 주말에 오랜만에 가족들과 외식을 했다.

-지난주에 시험이 다 끝나고 이제 방학이 시작되었다.

-가: 너 요즘 영화 자주 보는 것 같아.

-나: 지난주에 이어 오늘이 세 번째야.

매일1 명사

하루하루의 모든 날.

-매일 아침.

-매일 밤.

-매일의 상황.

-매일의 생활.

-매일의 일기.

-매일을 보내다.

-매일을 지내다.

-나는 매일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한다.

-연구소에서는 우주 행성들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매일의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.

-가: 부모님은 안녕하시지?

-나: 응. 요즘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재미로 매일을 지내서.

날짜 명사

날의 수.

- 날짜가 남다.
- 날짜가 모자라다.
- 날짜가 촉박하다.
- 날짜를 계산하다.
- 날짜를 꼽다.
- 날짜를 세다.
- 이사하기로 한 날짜지는 아직 날짜가 좀 남았다.
- 공사를 이달 말까지 끝내기로 했는데 날짜가 좀 모자라다.
- 가: 입사 원서 마감 날짜 좀 계산해 봐.
- 나: 아직 삼 일이나 남았네.

무엇을 하려고 정한 날.

- 결혼 날짜.
- 약속 날짜.
- 날짜가 다가오다.
- 날짜가 되다.
- 날짜를 잡다.
- 날짜를 정하다.
- 날짜가 지나다.
- 지수의 결혼 날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.
- 민준은 게을러서 숙제를 정해진 날짜에 낸 적이 없다.
- 가: 다음 회의 날짜는 언제로 정할까요?
- 나: 다음 주 월요일이 어때요?

어느 해의 어느 달 며칠.

- 내일 날짜.
- 오늘 날짜.
- 제조 날짜.
- 날짜를 모르다.
- 날짜를 묻다.
- 날짜를 쓰다.
- 이번 달 월급이 오늘 날짜로 입금되었다.
- 엄마는 식품을 사기 전에 제조 날짜를 꼭 확인하신다.
- 가: 오늘이 며칠이지?
- 나: 십이월 십오 일인데 갑자기 날짜는 왜 물으세요?

내일1 명사

오늘의 다음 날.

-내일 밤.

-내일 새벽.

-내일 아침.

-내일 저녁.

-내일 점심.

-내일의 날씨.

-내일이 되다.

-내일로 미루다.

-내일이면 학교 친구들과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.

-부장님은 이미 퇴근하셨으니 내일이 되어야 만나실 수 있습니다.

-지배인은 승규의 이력서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했다.

-내일도 시간이 많은데 왜 이 일을 꼭 오늘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.

-가: 학교 끝나고 뭐 해요?

-나: 내일이 친구 생일이라서 선물을 사러 갈 거예요.

앞으로 올 날.

-한국의 내일.

-밝은 내일.

-어두운 내일.

-희망찬 내일.

-내일의 도약.

-내일의 세대.

-오늘과 내일.

-내일을 기다리다.

-내일을 기약하다.

-내일을 꿈꾸다.

-내일을 내다보다.

-내일을 약속하다.

-내일을 열다.

-내일을 짊어지다.

-내일을 이끌 젊은 지도자들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.

-한국의 밝은 내일을 위해서는 교육을 바로잡는 일이 중요하다.

-우리는 다양한 책을 읽으며 내일을 대비하고 있다.

-이 책은 오늘을 진단하는 일보다는 내일의 희망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.

-가: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

-나: 네, 제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문제점들과 내일의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
그저께1 명사

어제의 전날. 이틀 전.

-그저께 밤.

-그저께 오후.

-그저께 하루.

-그저께의 일정.

-그저께 만나다.

-그저께가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었다.

-어저께는 아빠 생신이었고 그저께는 엄마 생신이었다.

-월드컵은 그저께 밤에 끝났지만 아직까지도 그 열기는 남아 있다.

-가: 언제부터 열이 났나요?

-나: 그저께부터요.

올해 명사

이번 해.

-올해 계획.

-올해 말.

-올해 초.

-올해 추석.

-올해의 책.

-올해를 시작하다.

-올해를 기준으로 하다.

-올해를 끝으로 하다.

-올해는 다른 어떤 해보다 휴일이 많다.

-나의 올해 계획은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는 것이다.

-우리 회사는 올해를 끝으로 더 이상 자동차 생산을 하지 않는다.

-가: 올해 계획이 뭐예요?

-나: 저는 올해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.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할 거예요.

년2 의존 명사

한 해를 세는 단위.

-이삼 년.

-이삼십 년.

-몇 년.

-삼 년 동안.

-오 년 후.

-우리는 일 년에 네 번 정기적으로 모인다.

-나는 친구와 이십 년 후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.

-나는 스무 살 때부터 마흔 살 때까지 이십 년 동안 서울에서 살았다.

-그는 대학에 입학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딱 사 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였다.

-가: 대략 일이 년 정도만 여기서 일할 계획입니다.

-나: 아, 그러세요? 저희는 십 년 이상 오래 일할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.

개월 의존 명사

달을 세는 단위.

-일 개월.

-팔 개월.

-이 년 삼 개월.

-생후 이십사 개월.

-이 개월 정도.

-이 개월 만에.

-육 개월 동안.

-언니는 아이를 가진 지 십 개월 만에 예쁜 딸을 낳았다.

-나는 일월부터 삼월까지 삼 개월 동안 외국어를 배웠다.

-가: 너 육 개월 후에 유학 간다면서?

-나: 응, 반년이면 준비 끝내고 떠날 수 있을 것 같아.

모레1 명사

내일의 다음 날.

-모레가 주말이다.

-모레까지 일하다.

-모레부터 시작하다.

-모레에 만나다.

-내일이나 모레쯤 시장에 가서 장을 볼 것이다.

-오늘이 이십구 일이니 모레면 벌써 이달 말일이다.

-가: 목요일이 되니까 피로가 쌓여서 지치네요.

-나: 그래도 모레부터 주말이니 힘내서 일합시다.

새해 명사

새로 시작되는 해.

-새해 아침.

-새해 인사.

-새해가 다가오다.

-새해가 오다.

-새해를 맞이하다.

-나는 부모님께 새해 인사를 드렸다.

-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한 해의 계획을 세웠다.

-가: 2010년이 가고 드디어 새해 아침이 밝았네요.

-나: 그러게. 지수야, 새해 복 많이 받으렴.

지난달 명사

이번 달의 바로 전의 달.

-힘든 지난달.

-지난달 말.

-지난달 중순.

-지난달 초.

-지난달 초순.

-지난달 하순.

-지난달 일 일.

-지난달의 성적.

-김 대리의 사월 영업 실적은 지난달에 비해 떨어졌다.

-유민이는 지난달 일 일에 귀국해 지금까지 약 석 달 동안 한국에 머물렀다.

-지난달부터 시작한 준비 작업이 이번 달 말이나 되어서야 끝났다.

-가: 지수 씨, 오랜만이에요. 어떻게 지냈어요?

-나: 네, 오랜만이에요. 지난달에는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바빴어요.

그날 명사

앞에서 말한 날.

-그날 밤.

-그날 새벽.

-그날 아침.

-그날 오후.

-그날 이후.

-그날 일.

-그날 저녁.

-지수는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가 그날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.

-작년 십이월쯤 눈이 아주 많이 온 날이 있었는데 그날 아침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.

-가: 지난주 경영학 수업 과제가 뭐였어?

-나: 나는 그날 병원에 가느라 수업에 못 갔어.

작년 명사

지금 지나가고 있는 해의 바로 전 해.

-작년 가을.

-작년 겨울.

-작년 말.

-작년 상반기.

-작년 여름.

-작년 이맘때.

-작년 일월.

-작년 초.

-작년 하반기.

-작년 한 해.

-작년과 올해.

-올해 입학시험은 작년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.

-작년 한 해에 우리 회사는 백만 대의 자동차를 팔았다.

-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내 영화가 관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.

-올해는 작년보다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가야 사회가 발전의 희망을 가지게 된다.

-가: 저는 작년에 한국에 왔어요.

-나: 그래요? 한국에 온 지 일 년이 됐네요.

-가: 올해에는 꼭 취직을 해야 할 텐데.

-나: 그러게 말이야. 작년에 졸업하고 지금 일 년째 취직 준비만 하고 있잖아.

연말 명사

한 해의 끝 무렵.

-연말 결산.

-연말 모임.

-연말 보고서.

-연말 보너스.

-연말 행사.

-연말까지 계속하다.

-민준이는 연말에 동창들과 모여 송년회를 열었다.

-지수는 연말을 부모님과 함께 보내기 위해 휴가를 내고 고향에 내려갔다.

-가: 이번 연말에는 뭐 할 거예요?

-나: 가족들과 바다에 가기로 했어요.

월1 명사

한 달 동안.

-월 계약.

-월 생산.

-월 생활비.

-월 소득.

-월 이자.

-지수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 생활비를 벌고 있다.

-회사의 영업 직원들은 월 매출을 올린 대가로 상여금을 받았다.

-가: 이 영어 학원은 월 수강료가 얼마죠?

-나: 주 오일 반은 이십만 원이고 주 삼일 반은 십오만 원입니다.

달2 의존 명사

일 년을 열둘로 나눈 것 가운데 하나의 기간을 세는 단위.

-두 달.

-두세 달.

-다섯 달 남짓.

-몇 달.

-한 달 반.

-넉 달 걸리다.

-서너 달을 쉬다.

-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열 달 동안 자란다.

-지수는 다음 달에 외국 유학을 떠날 예정이다.

-민준은 여름 방학 두 달 동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.

-신입 사원인 유민이는 입사한 지 한 달이 지난 후에 첫 월급을 받았다.

-가: 그 사람이 떠난 지 여섯 달이 넘었어.

-나: 그래. 벌써 반년이나 지났구나.

-가: 이 작품을 완성하시는 데에 얼마나 걸리셨습니까?

-나: 1월부터 3월까지 작업을 했으니 석 달쯤 걸린 것 같네요.

이틀 명사

두 날.

-이틀 후.

-이틀 간의 일정.

-이틀에 한 번.

-이틀이 지나다.

-이틀을 굶다.

-학회는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개최되었다.

-오늘이 12월 29일이니 올해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.

-가: 꽃이 예쁘네요. 언제 샀어요?

-나: 이틀 전에 샀어요. 마트에 갔다가 꽃이 예뻐서 샀어요.

매달 첫째 날부터 세어 둘째가 되는 날.

-다음 달 이틀.

-매달 이틀.

-시월 이틀.

-정월 이틀.

-이틀이 되다.

-이틀에 만나다.

-오월 이틀이 어머니 생신이다.

-다음 달 이틀에는 시댁에 제사가 있다.

-가: 지수야, 너 신년 휴가가 언제까지라고?

-나: 정월 이틀까지 쉬어요.

일주일 명사

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칠 일. 또는 한 주일.

-다음 일주일.

-이번 일주일.

-지난 일주일.

-일주일 내내.

-일주일 동안.

-일주일 전.

-일주일 후.

-일주일에 한 번.

-일주일이 걸리다.

-일주일이 지나다.

-일주일을 보내다.

-일주일을 앞두고.

-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, 월요일에 있다.

-나는 일주일 중에 오 일은 출근하고 주말에는 여가를 즐긴다.

-할머니는 쓰러지신 지 일주일 만에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셨다.

-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집을 나간 강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.

-가: 언제 마트에 가요?

-나: 매주 월요일 저녁에 가요. 그때 일주일 동안 먹을 음식을 사요.

오늘2 부사

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날에.

-오늘 끝나다.

-오늘 마치다.

-오늘 만나다.

-오늘 시작하다.

-오늘 오다.

-오늘 해야 할 일들이 많아 그는 야근을 한다.

-그녀는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을 위해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다.

-가: 프로젝트는 잘 끝났어?

-나: 오늘 겨우 끝냈어. 이제 잠 좀 자야지.

내일2 부사

오늘의 다음 날에.

-내일 가다.

-내일 떠나다.

-내일 만나다.

-내일 보다.

-내일 오다.

-내일 찾다.

-내일 출발하다.

-내일 하다.

-오늘은 도저히 일을 다 끝낼 수 없으니 내일 마저 하겠습니다.

-회사에서 내일 당장 이력서를 가지고 나와 달라는 전화가 왔다.

-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내일 지수에게 전화를 해 보아야겠다.

-가: 언제 만나서 이야기할까요?

-나: 빠를수록 좋으니까 내일 만날까요?

-가: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오늘 밤은 여기에서 자고 내일 출발하죠.

-나: 그럼 내일 일어나는 대로 바로 출발합니다.

일5 수사

수를 셀 때 제일 처음 수.

-일에 일을 더하면 이가 된다.

-아이는 손가락을 펴며 일부터 십까지 수를 세었다.

-우리 팀이 경기에서 이길 확률은 이분의 일, 즉 오십 퍼센트이다.

-가: 일부터 십까지 숫자를 읽어 봅시다.

-나: 일, 이, 삼, 사, 오, 육, 칠, 팔, 구, 십!

월3 의존 명사

달을 세는 단위.

-지수는 이번 달이 몇 월인지도 모를 만큼 바빴다.

-승규는 시위 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역 오 월을 선고 받았다.

-가: 오늘이 몇 월 며칠이지?

-나: 그러게, 나도 기억이 안 나네. 달력 좀 보자.

매일2 부사

하루하루마다 빠짐없이.

-매일 공부하다.

-매일 다니다.

-매일 만나다.

-매일 운동하다.

-매일 일하다.

-매일 전화하다.

-아이는 매일 한 번씩 게임을 하고 싶다고 한다.

-살을 빼기로 결심한 유민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운동을 했다.

-가: 한국에 계신 부모님한테는 자주 전화해?

-나: 내가 할 때도 있고 부모님이 하실 때도 있어서 거의 매일 통화해.

일4 의존 명사

날이나 날짜를 세는 단위.

-삼 일.

-십 일.

-오 일.

-삼십 일 동안.

-팔월 십오 일.

-축제는 삼 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다.

-나는 급한 일이 생겨 여행 날짜를 오 일 뒤로 미뤘다.

-가: 너 생일이 언제니?

-나: 칠월 팔 일이에요.

사흘 명사

세 날.

-사흘 동안.

-사흘 전.

-사흘 후.

-사흘이 걸리다.

-사흘이 지나다.

-장맛비는 사흘 동안 계속 내렸다.

-나는 그 편지를 받은 지 사흘 후에 어머니를 뵈러 고향에 내려갔다.

-가: 언제 집을 나왔어요?

-나: 사흘 전예요.

매달 셋째 날.

-사흘이 되다.

-사흘에 만나다.

-지수는 오월 사흘에 태어났다.

-이 마을에서는 해마다 정월 사흘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다.

-가: 오늘이 삼월 며칠이냐?

-나: 사흘이에요.

유월 명사

일 년 열두 달 가운데 여섯째 달.

-양력 유월.

-음력 유월.

-유월 그믐날.

-유월 보름날.

-유월 중순.

-유월 초순.

-유월 초하루.

-유월의 장마.

-유월의 태양.

-유월의 하늘.

-유월에 태어나다.

-여름이 시작되는 유월의 태양은 뜨겁다.

-승규는 예정일인 오월을 넘기고 유월에 태어났다.

-가: 지수 씨, 생일이 언제예요?

-나: 제 생일은 유월 십 일이에요.

나흘 명사

네 날.

-나흘 간.

-나흘 동안.

-나흘이 걸리다.

-나흘이 지나다.

-나흘이 흐르다.

-민준이는 감기 때문에 나흘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다.

-지수는 시험 보기 나흘 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다.

-가: 한국에는 온 지는 얼마나 된 거야?

-나: 삼 일에 왔는데 오늘이 칠 일이니까 이제 나흘 됐어.

매달의 넷째 날.

-다음 달 나흘.

-매달 나흘.

-이번 달 나흘.

-시월 나흘.

-유월 나흘.

-우리는 매달 나흘에 부부 동반 모임을 가지고 있다.

-지난달 나흘에 받았던 검사 결과가 한 달 만에 나왔다.

-가: 집세는 언제 드리면 될까요?

-나: 오늘이 사 일이니까 매달 나흘에 주시구려.

내년 명사

올해의 바로 다음 해.

-내년 가을.

-내년 겨울.

-내년 봄.

-내년 상반기.

-내년 여름.

-내년 이맘때.

-내년을 기다리다.

-작년에 군대에 간 아들은 내년 봄에 제대한다.

-정부가 서민층을 위해 새롭게 제정한 법은 내년부터 시행된다.

-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나는 올해를 넘겨 내년 봄쯤 이사를 가려고 한다.

-가: 고향에 언제 돌아갈 거예요?

-나: 아마 내년에 돌아갈 거예요. 그때 대학교를 졸업해요.

일3 명사

하루 동안.

-서울로 가는 기차는 일 십 회 운행하고 있다.

-약 봉투에는 일 삼 회 복용하라고 적혀 있었다.

-섬으로 들어가는 배는 이 항구에서 일 오 회 출항한다.

십이월 명사

일 년 열두 달 가운데 마지막 달.

-이천 년 십이월.

-십이월 말.

-십이월 상순.

-십이월 이전.

-십이월 이후.

-십이월 일 일.

-십이월 중.

-십이월 중순.

-십이월 첫째 주.

-십이월 초.

-십이월 하순.

-십이월이 다가오다.

-십이월이 지나가다.

-십이월로 예정되다.

-작년 십이월에는 눈이 많이 내려 연초까지 눈이 쌓여 있었다.

-우리는 한 해가 다 지나가는 십이월 말에 고등학교 동창회를 하기로 했다.

-가: 십이월이 다 지나가네.

-나: 응. 한 해가 다 끝났구나.

다음날 명사

정해지지 않은 미래의 어느 날.

-다음날을 기약하다.

-다음날에 가다.

-다음날에 만나다.

-다음날에 오다.

-지수와 반 친구들은 아쉬운 마음에 다음날을 기약하며 헤어졌다.

-이 가게의 옷들이 마음에 들어서 다음날 한번 다시 오려고 한다.

-가: 너한테 빌린 책을 언제 돌려줄까?

-나: 다음날 만날 일이 생기면 그때 줘.

그저께2 부사

어제의 전날에. 이틀 전에.

-그저께 가다.

-그저께 놀다.

-그저께 만나다.

-그저께 보다.

-그저께 체한 것이 이틀이 지난 오늘까지도 낫지 않았다.

-그저께 여자 친구와 헤어진 승규는 오늘도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.

-가: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를 그저께 시작했어.

-나: 저런. 공부를 이틀밖에 안 했다는 거야?

날3 의존 명사

하루 동안을 세는 단위.

-한 날.

-두 날.

-세 날.

-몇 날.

-몇 날 며칠.

-나는 입사하고 나흘째 날부터 야근을 해야 했다.

-가: 할머니, 우리 엄마 언제 와요?

-나: 응, 우리 지수 일곱 날만 자연 엄마 볼 수 있어.

일월 명사

일 년 열두 달 가운데 첫째 달.

-일월 말.

-일월 십오 일.

-일월 일 일.

-일월 중순.

-일월 초.

-일월 초순.

-일월 하순.

-일월이 되다.

-일월이 지나다.

-일월을 맞다.

-일월을 보내다.

-나는 일월 일 일 새해를 맞아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다.

-지수는 새로운 부서로 발령이 나서 내년 일월부터 그곳에서 근무한다.

-우리는 일월의 찬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옷통을 벗고 운동장을 뛰었다.

-가: 언제까지 회사에서 일할 거예요?

-나: 내년 일월까지 일을 하기로 했어요. 이월부터 여행을 할 거예요.

매달2 부사

각각의 달마다.

-매달 월요일.

-매달 주말.

-매달 첫째 주.

-매달 만나다.

-매달 검사하다.

-매달 나는 할머니를 찾아보다.

-지수는 매달 휴대폰 통화료가 십 만원 넘게 나온다.

-이 가게는 매달 첫 번째 수요일에 가게 문을 닫는다.

-가: 우리 지역 환경 보호 단체에 가입하지 않을래?

-나: 그거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모이는 거 맞지?

지난해 명사

이번 해의 바로 전의 해.

-다사다난한 지난해.

-풍족했던 지난해.

-지난해의 성과.

-지난해가 생각나다.

-지난해를 기억하다.

-지난해에 만나다.

-우리 팀 성과가 지난해 같지 않다.

-지난해를 반성하며 새해를 맞이합시다.

-올해 수출은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습니다.

-가: 아버지는 어떠세요?

-나: 지난해까지는 괜찮으셨는데 요즘에는 병세가 더 안 좋아졌어요.

열흘 명사

열 날.

-열흘 간격.

-열흘 남짓.

-열흘 내내.

-열흘 뒤.

-열흘 사이.

-열흘 전.

-열흘 후.

-열흘의 기한.

-열흘의 휴가.

-열흘이 걸리다.

-열흘이 넘다.

-열흘이 되다.

-열흘이 지나다.

-열흘을 견디다.

-열흘을 머물다.

-열흘을 보내다.

-이 책은 발행 열흘만에 베스트셀러로 선정되었다.

-세미나가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동안 열릴 예정이다.

-도서관 공사로 10일부터 20일까지 총 열흘 동안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다.

-가: 고향에 얼마 동안 갈 거예요?

-나: 이번에는 열흘 동안 갈 거예요. 빨리 가고 싶어요.

매달 첫째 날부터 헤아려 열째 되는 날.

-내달 열흘.

-이달 열흘.

-지난달 열흘.

-우리 가족은 다음 달 열흘인 10월 10일에 새 집으로 이사한다.

-이 시민 단체는 매달 열흘에 불우 이웃을 위한 바자회를 연다.

-가: 우리 계 모임이 언제였더라?

-나: 매달 열흘이야. 이번 달 10일에 계주 집에서 계 모임을 해.

매주1 명사

각각의 주.

-매주 월요일.

-매주 주말.

-매주의 모임.

-매주에 한 번.

-매주에 만나다.

-매주에 보다.

-나는 매주 수요일마다 수영을 한다.

-이 도서관에는 매주에 새 책이 들어온다.

-가: 너 요즘에 봉사 활동을 한다면서?

-나: 응. 매주에 한 번씩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.

이월1 명사

일 년 열두 달 가운데 둘째 달.

-이월 말.

-이월 십오 일.

-이월 일 일.

-이월 중순.

-이월 초.

-이월 초순.

-이월 하순.

-이월이 되다.

-이월이 지나다.

-이월을 맞다.

-이월을 보내다.

-지금은 이월인데 아직 겨울처럼 추워요.

-새해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흘러 이월이 되었다.

-그렇게 겨울 방학이 끝나고 이월 말이 되자 우리는 정들었던 학교를 졸업했다.

매주2 부사

각각의 주마다.

-매주 월요일.

-매주 모이다.

-매주 방송하다.

-매주 준비하다.

-매주 청소를 하다.

-매주 금요일마다 주식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-봄맞이 대축제가 3월부터 4월까지 매주 주말마다 열린다.

-가: 새로 들어간 직장은 어떠니?

-나: 매주 야근을 해서 몸이 힘들어.

구월 명사

일 년 열두 달 가운데 아홉째 달.

-구월 초순.

-구월 중순.

-구월 하순.

-구월 초.

-구월 말.

-구월 칠 일.

-구월 십오 일.

-구월이 되다.

-구월이 지나다.

-구월을 맞다.

-구월을 보내다.

-구월의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다.

-유민이의 학교는 구월 일 일에 개강을 했다.

-구월이 되니 낮에는 여전히 더웠지만 밤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었다.

매년1 명사

한 해 한 해.

-매년의 수입.

-매년의 행사.

-연봉은 매년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조금씩 오른다.

-민준이는 일정이나 약속을 메모한 매년의 달력을 버리지 않고 모은다.

-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업무 능력 평가 주기를 매년에서 매 육 개월로 바꾸기로 했다.

-가: 올해 가을에도 불꽃놀이 축제를 할까?

-나: 응. 매년 하는 행사니까 이번 가을에도 할 거야.

모레2 부사

내일의 다음 날에.

-모레 가다.

-모레 만나다.

-모레 오다.

-국립 발레단의 공연이 모레 있을 예정이다.

-모레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.

-가: 모레 우리 마을에 단수가 된대.

-나: 그럼 오늘하고 내일 미리 물을 좀 받아 놓아야겠어.

이날 명사

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날.

-이날 공연.

-이날 모임.

-이날 결정하다.

-이날 도착하다.

-이날 만나다.

-이날 발표하다.

-지난 금요일에 공연장에 갔는데 이날 공연에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무대에 올라왔다.

-형은 지난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을 봤는데 우리 가족은 이날 하루 종일 초조하게 형을 기다렸다.

-가: 지난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?

-나: 일요일에 딸이 태어났어요. 이날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.

십일월 명사

일 년 열두 달 가운데 열한째 달.

-지수의 생일은 십일월 십오 일이다.

-십일월인데 벌써부터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다.

-엄마는 작년 십일월부터 두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다.

-가: 올해 말에 계약이 끝나는데 빨리 이사 갈 집을 알아보시다.

-나: 십일월부터 알아보면 되는데 월 그렇게 서둘러요.

시월 명사

일 년 열두 달 중 열 번째 달.

-내년 시월.

-작년 시월.

-오는 시월.

-시월이 가다.

-시월이 되다.

-지수는 시월에 태어났다.

-이곳은 단풍이 드는 시월이면 절경이 된다.

-유민이는 일 년 중 바람이 선선한 시월을 가장 좋아한다.

-조석으로 쌀쌀한 시월이 되자 사람들의 옷차림이 두꺼워졌다.

-가: 야외 결혼식을 한다고?

-나: 응, 그래서 덥지도 춥지도 않은 시월에 하기로 했어.

팔월 명사

일 년 열두 달 가운데 여덟째 달.

-팔월 말.

-팔월 십오 일.

-팔월 일 일.

-팔월 중순.

-팔월 초.

-팔월 초순.

-팔월 하순.

-팔월이 되다.

-팔월이 지나다.

-팔월을 맞다.

-팔월을 보내다.

-팔월에 접어들다.

-우리는 팔월의 찜통 같은 더위를 피해 계곡으로 놀러 갔다.

-팔월을 맞아 산과 바다로 여름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.

-팔월의 해는 꽤 길어 저녁을 먹고 나왔는데도 밖은 아직 밝았다.

-산 위로 떠오른 음력 팔월의 보름달을 보고 아이들은 소원을 빌었다.

-어느덧 그 더운 팔월도 다 지나가 가을을 알리는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.

-가: 승규는 미국에서 언제 돌아와요?

-나: 내년 팔월쯤 돌아올 거예요.

매달1 명사

한 달 한 달.

-매달의 모임.

-매달의 행사.

-매달에 가다.

-매달에 만나다.

-매달에 치르다.

-승규는 매달 등산을 하며 전국의 산을 돌았다.

-우리 반은 매달에 두 번씩, 거의 이 주에 한 번씩 시험을 쳤다.

-가: 전셋집을 좀 구하고 싶은데요.

-나: 전세는 없고 월세만 있어요. 매달에 돈을 내는 게 좀 부담스럽겠지만 조건이 좋아요.

일6 관형사

하나의.

-일 개월.

-일 그램.

-일 년.

-일 도.

-일 리.

-일 리터.

-일 미터.

-일 분.

-일 원.

-일 주.

-일 초.

-일 톤.

-일 퍼센트.

-일 회.

-나의 백 미터 달리기 기록이 일 초 빨라졌다.

-우리는 아이가 태어난 지 일 년이 된 기념으로 잔치를 했다.

-동생은 무게가 일 킬로그램도 안 되어 보이는 작은 새끼 강아지를 안고 있었다.

-가: 이 문제를 일 분 안에 풀 수 있어?

-나: 그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런 복잡한 문제를 풀어?

첫 번째의.

-일 과.

-일 동.

-일 등.

-일 반.

-일 번.

-일 일.

-일 장.

-일 절.

-일 조.

-일 쪽.

-일 층.

-일 탄.

-일 페이지.

-일 편.

-일 학년.

-책의 일 페이지에는 차례가 나와 있었다.

-첫 수업이니 교과서의 일 과부터 차례대로 공부합시다.

-가: 이 영화 벌써 이 탄이 나왔네!

-나: 응. 난 아직 일 탄을 못 봐서 일 탄부터 보고 이 탄을 보려고.

사월 명사

일 년 열두 달 가운데 넷째 달.

-사월 말.

-사월 삼 일.

-사월 십오 일.

-사월 중순.

-사월 초.

-사월 초순.

-사월 하순.

-사월이 되다.

-사월이 지나다.

-사월을 맞다.

-사월을 보내다.

-사월이 되자 벚꽃이 만개하여 장관을 이루었다.

-어느덧 사월이 지나고 오월이 되니 낮에는 반팔 옷을 입어야 할 정도로 더워졌다.

-가: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?

-나: 사월 오 일 식목일입니다.

매년2 부사

해마다.

-매년 감소하다.

-매년 되풀이되다.

-매년 발행하다.

-매년 실시하다.

-매년 열리다.

-매년 증가하다.

-이 지방에서는 매년 4월 봄꽃 축제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왔다.

-아이들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여름 방학을 시골 할머니 댁에서 보낸다.

-과외를 시작하는 연령이 낮아지면서 사교육비가 매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.

-나는 매년 스승의 날이 돌아오면 친구들과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찾아뵙는다.

-쾌적한 실내 공기를 위하여 매년 적어도 두 번은 에어컨을 청소해 주어야 한다.

-가: 작년에도 동해안에 가지 않았어?

-나: 응. 우리 가족은 5년 전부터 새해맞이 일출을 보러 매년 동해안에 가.

삼월 명사

일 년 열두 달 가운데 셋째 달.

- 삼월의 봄.
- 삼월이 되다.
- 삼월이 오다.
- 삼월을 맞이하다.
- 삼월에 입학하다.
- 삼월 초의 캠퍼스는 신입생들로 늘 활기가 넘친다.
-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삼월과 구월에 새 학기가 시작된다.
- 길가에 핀 개나리를 보니 삼월이 되었다는 것이 실감난다.
- 가: 이번 겨울은 너무 추워서 유난히 더 길게 느껴져.
- 나: 맞아. 얼른 꽃 피는 삼월이 왔으면 좋겠어.

오월 명사

일 년 열두 달 가운데 다섯째 달.

- 작년 오월.
- 따사로운 오월.
- 오월 십 일.
- 오월이 되다.
- 오월이 오다.
- 오월이 지나다.
- 오월이 되면 대학 캠퍼스는 축제로 활기가 넘친다.
- 나는 오월 하면 알록달록 어우러진 예쁜 꽃과 푸른 잎이 떠오른다.
- 공원에는 오월의 따뜻한 날씨를 즐기려고 소풍을 나온 가족들이 많았다.
- 가: 벌써 오월이네요. 오월에 공휴일이 많은데 계획이 있어요?
- 나: 네, 오월에는 어린이날하고 어버이날이 같이 있어서 가족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.

칠월 명사

일 년 열두 달 가운데 일곱째 달.

-칠월 말.

-칠월 십오 일.

-칠월 일 일.

-칠월 중순.

-칠월 초.

-칠월 초순.

-칠월 하순.

-칠월이 되다.

-칠월이 지나다.

-칠월을 맞다.

-칠월을 보내다.

-칠월에 접어들다.

-여름 방학은 칠월 초에 시작한다.

-칠월에 시작된 장마로 강물은 많이 불어 있었다.

-칠월의 불덩이 같은 태양 때문에 거리는 녹아내릴 것만 같았다.

-가: 아이는 칠월 버 이삭처럼 쑥쑥 자라네요.

-나: 한참 커야 될 나이죠.